

'블랙컬러' 코디는 이렇게...



블랙+블랙+블랙...
올 가을 거리는 블랙이 장악했다. 날씬하고 세련돼 보이는 블랙컬러가 가을 시즌 최고의 인기 컬러로 떠오른 것. 이미 인기 디자이너들이 F/W 컬렉션에서 블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블랙'이 핫 아이템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패션 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블랙 컬러다. 무난한 색상이지만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중충하고 개성 없어 보일지, 화려하고 세련돼 보일지는 블랙을 선택한 당신의 몫이다. 블랙 컬러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해 낼 수 있을까.

도도한 블랙 가을을 지배하다

■색상은 단순하게, 디자인은 화려하게
색상이 '튀지'않은 만큼 블랙 의상을 구입할 때는 다소 과감한 디자인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 레이스나 라본이 있거나, 어깨선이 드러나는 디자인 등 화려한 디자인을 선택해 다소 심심해 보이는 블랙 의상에 멋을 더해보자. 스트라이프 무늬 등 프린트가 들어간 블랙 상의에 청바지, 미니 스커트를 걸치면 발랄한 분위기를, 가슴 부분에 프린트나 볼라우스에 깔끔한 정장 바지를 걸치면 성숙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소재 역시 평범한 블랙 의상에 포인트를 주는 항목. 일반적인 면이나 니트에서 벗어나 새틴이나 벨벳, 시폰 등 소재의 의상으로 여성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연출해보자.

■다양한 컬러와 함께 매치

블랙&화이트, 블랙 코디의 기본적인 공식이다. 특히 블랙 컬러 스커트와 팬츠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깔끔한 화이트 셔츠와 찰떡궁합이다. 다소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스카프를 활용해 보자. 블라우스나 셔츠 위에 살짝 걸쳐 주는 것만으로 우아한 느낌을 자아낼 수 있다.

화이트와 함께 블랙과 잘 어울리는 색상이 브라운과 블루. 지색하면서도 활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준다. 레드 등 강렬한 컬러와 함께 코디하면 색시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액세서리로 포인트

골드나 실버 컬러의 하리 벨트는 다리가 짧거나, 허리가 '뚱'자인 여성에게 유용한 아이템. 날씬하면서도 다리가 길어보인다. 진주 목걸이나 가슴까지 길게 내려오는 목걸이를 포인트를 주는 것도 올 블랙 의상을 멋지게 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유행인 듯 보인다. 여기에 커다란 가발을 매치하면 훌륭한 오피스 레이디 룩이 완성된다. 비즈나 구슬 등의 소재로 이뤄진 클러치 백을 단다면 '파티걸'로도 손색이 없다. 구두는 의상에 따라 선택한다. 도시적인 이미지를 원한다면 앞 부분이 뾰족한 하이힐을, 귀여운 이미지를 원한다면 앞 코가 둥근 구두를 신는다. /객원기자사 ks@kwangju.co.kr



(사진제공=신원)

손질 한듯 안한듯 짧고 자연스럽게

올 가을 헤어스타일 발랄한 단발 유행

김지영(27·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최근 머리를 짧게 잘랐다. 한 드라마의 여주인공을 보고 머리를 자른 것. 그동안 어깨까지 오는 생머리를 고수해왔던 김씨는 "계속 비슷한 스타일을 해와서 질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머리를 잘랐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에 변화의 바람이 찾아왔다. 짧고, 손질 안 한 듯한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예인들의 머리에서 먼저 찾아왔다.

최근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에게서 긴 생머리를 찾지 못한다. 30~40대의 중년 배우들을 포함해 20대 젊은 여배우까지 짙은색 머리에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배우가 고영성. '봄날'에서 탐스러운 긴 생머리를 자랑했던 고영성은 새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에서 짧은 머리로 스타일을 바꿨다. 영화 '타짜'에서 유혹적인 정미담 역



올 가을 헤어스타일 발랄한 단발 유행

을 맡은 김혜수도 마찬가지다. 짧은 컷에 머리 끝만 살짝 동글게 말아 독특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짧은 머리는 깔끔하고 시원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관리가 까다로운 머리가기도 하다. 자칫 부스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손질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한다. 머리를 말린 후 헤어에센스를 발라 머릿결에 윤기를 더하고, 볼륨감이나 가벼운 정도도 드라이를 해준다.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여성이라면 머리를 심하게 층낸 새끼컷이나 레어드 스타일을 추천한다. 단정한 스타일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얼굴을 살짝 덮는 보브 단발이 좋다. 헤어도파도의 김양자 원장은 "와스를 머리 안쪽에 발라 볼륨감을 살리는 것이 포인트"라며 "가을에는 머리카락도 건조해지는 만큼 두피나 모발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객원기자사 ks@kwangju.co.kr

시간·장소 따라 변신 '패션가발' 인기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지만 막상 실행하기엔 어려운 것이 머리 모양이다. 큰 란 먹고 머리를 잘랐는데 어울리지 않는다면, 잦은 펌으로 머릿결이 상했다든지 하는 일이 부지기수. 이럴때 간편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가발이다.

가발은 변장을 위한 것이나, 머리 스타일 없는 사람들만 사용한다는 편견을 넘어 '패션 가발'이 인기를 끌면서 가발 판매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가을을 맞아 변화를 주고 싶어진 요즘에는 더욱 그렇다. 패션가발을 판매하고 있는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달 평균 가발 판매량은 3천개. 지난달에 비해 매출 상승률은 25%에 달한다. 가격은 3만~7만원선. 가발을 쓸 때는 샴푸를 이용해 샴푸 주물러 빨도록 한다. 세척후에는 원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발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말린다.

현대인의 웰빙식품 오디 녹산오디
4호 녹산오디 팩 (30포,60포,100포)
30포 45,000원 60포 90,000원 100포 150,000원
녹산오디 원액 (1호,2호,3호)
(1호) 120,000원 (2호) 90,000원 (3호) 100,000원
녹산오디 호남총판 광주시 광산구 신항동 1125-2(부원빌딩 4층) TEL: 062)956-5254 FAX: 062)956-5258

첨단체계공인중개사
동림2지구 신축, 각층 100평 병·의원, 학원, 상가 1층 대형마트 확장
첨단중심 상업지역
첨단 원룸 건물급매
첨단 인근 자연·생선녹지
싼 공장, 창고부지 "금매매"
남궁창 뒷쪽 1000평 가든공장 장 참고, 불류 최저지

금보부동산컨설팅
신당매매
건원주매매
건물매매
주유소매매
금매매

민음공인중개사
첨단지역, 상암동, 활계동, 상업지역 상가건물 매도
첨단지역, 상암동, 활계동, 상가인대
첨단지역, 상암동, 활계동, 상가인대
자연녹지, 생선녹지, 임야
자연녹지, 생선녹지, 임야

(주)홈컨부동산
리서치 중 개
대인부동산컨설팅
퓨전 레스토랑 임대
학원임대
영어학원 임대
토지매매

중개법인 리치부동산리(주)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용골
시설물: 파이프비닐하우스
현황: 평탄한 지형임
토지매매

(주)옥선코리아 법원경매
아파트
근린주택
주말+다지
다가구(원룸)
다세대(원룸)
다세대(원룸)
다세대(원룸)